

파견기간	2023 2 학기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0-14840
파견국가	독일		소 속	건설환경공학부
파견대학	TUM(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성 명	조다은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직접적인 교환 결정 동기는 방학 동안 진행되는 스누인 파견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나서였다. 해외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겪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교환 프로그램을 다녀온 과 동기들이 모두 추천해 주었기에, 휴학을 한 번도 안 한 대신 교환 프로그램으로 나 자신을 다잡을 기회를 가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도 있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필자가 가진 교환 프로그램 신청 목적이 학생 신분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접하고 여행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이 확고했기에 유럽 국가로 파견 신청을 하고 싶었으며, 여행 다니기 좋다는 독일의 대도시, 즉 베를린과 뮌헨 중 고민을 하고 있었다. 뮌헨의 TUM을 일순위로 신청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높을 것이며, 유학생이 많아 유학생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는 후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파견을 와서 보니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독일의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뮌헨은 독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만큼 치안이 좋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다. 대신 식당의 가격, 일부 생필품 등 물가가 전체적으로 비싸며, 주거비가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한국 등 아시아 계열 교환학생에게는 100% 기숙사가 지원되는 정책이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TUM의 캠퍼스는 총 세 개로, 경영학과 및 건설환경공학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내에 위치한 Main campus, 근교에 위치해 있어 한 시간 좀 안 되게 걸리며 infomatics 등의 소위 서울대학교의 뒷골대 학과들이 위치한 Garching campus, 마지막으로 특정 학과가 위치한 Freising campus가 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일단 교환 파견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이 독일 대사관 사이트에서 비자를 신청하러 갈 수 있도록 소위 테어민이라고 불리는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독일 비자 신청이라고 치면 바로 사이트가 나오며, 기본적으로는 3개월 후 날짜와 약 한 달 후 무작위 시간의 날짜가 풀린다. 예약이 풀리는 시간은 독일 시간으로 자정 즈음인데, 겨울 기준으로는 신청할 때에는 8시 16분 정도였다. 3개월 후 날짜는 매우 넉넉하게 예약을 잡을 수 있으며, 필자는 한 달 전에 비자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려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했다. 가끔 일주일 후 등 임박한 날짜가 풀리기도 하는데, 너무 경쟁이 심해서 못 잡는다고 보면 된다.

일단 방문 예약을 했으면 인터넷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비자 신청서, 여권 및 여권 사진, 보험 증명서(TUM은 TK 공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관련해서 이메일로 연락이 올 테니 잘 확인하면 된다. 여행자 보험사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슈페어콘토를 만들 때 같이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재정증명서 혹은 슈페어콘토(한국에서 비자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한 달마다 미리 넣어 둔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는 블록 계좌가 필요하고 이를 슈페어콘토라고 한다. Expatrio를 제일 많이 쓰는 듯하고, 필자도 그곳에서 만들었다.), 입학 허가서, 비자 발급 비용(약 10만원 가량, 현금만 가능)을 준비해서 해당 시간에

대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단, 입학 허가서가 필요한데 TUM 이 이를 늦게 주는 편이니(10 월 개강 기준으로 7 월 말쯤 받았던 것 같다.) 너무 비자 방문 예약을 일찍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비자 방문 예약 일자는 출국일 기준 6 주~두 달 전쯤이면 적당하고, 필자는 정 예약을 못 해서 출국일 4 주 전으로 잡았는데 3 주만에 비자가 나왔다. 교환학생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니 독일 대사관 측에서도 웬만하면 출국일 전에 비자를 주려고 편의를 봐 주는 듯하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꼭 미리미리 신청할 것!

웬만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가는 것을 추천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독일 뮌헨 비자청에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짧아도 2 개월~3 개월까지 걸리는 것 같아 여행을 다닐 거라면 뮌헨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비추천한다. 임시 비자도 발급해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 번 발급받으면 다음부터는 발급받지 못하는 등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2. 숙소 지원 방법

언급했다시피 월세 및 주거비가 매우 비싸므로(평균적으로 기숙사비의 두 배 정도이다.)학교 기숙사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숙소에 관해서는 걱정 없이 메일로 알려주는 안내 사항만 잘 읽고 제 때 따라하면 기숙사를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로 일괄적으로 받은 후에(희망 기숙사비 등) 랜덤 배정되는데, Olydorf 만 개인 주방과 욕실이 있고 나머지는 플랫 형태로 주방이 공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Tuition fee 는 약 80 유로로 학기가 끝나기 약 한 달 전까지만 내면 되는 비용이다. 또한 원래는 등록금이 없었지만, 2024 년부터는 등록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있다. 하지만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 파견 학교 대신 서울대에 등록금을 내면 되니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기숙사비는 내가 거주하는 Olydorf 의 경우 관리비 포함 월 388 유로이며, 보증금은 500 유로이다. 다른 기숙사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숙사를 배정해 줬다는 메일이 오고 기숙사비 입금 안내가 오면 해외 송금 앱을 이용해 입금하고 확인서를 회신하면 된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TUM online 이라는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과목은 학기 절반 넘는 기간 동안 수강 신청이 자유롭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독일에 도착해서 학과 오티를 듣고 따라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세미나 및 독일어 수업 등 일부 과목은 학기 시작 전으로 수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업은 크게 세미나, 렉처 그리고 실험(exercise)과목으로 나뉜다. 렉처 수업은 강의만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체크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과제도 없고 중간고사도 없다. 기말고사 한 번만 치르는 수업이 대다수이다. 세미나와 실험 과목은 출석체크 및 과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는 대신 발표 및 보고서로 성적을 매긴다는 장점이 있다. 단, 서울대학교 학점 인정을 받는 데 있어 실험 과목은 30 시간이 1 학점으로 인정된다. TUM online 에서 수업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과목 및 수강 신청 기간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지만 TUM 측에서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메일로 보내 주기 전까지는 수강 신청은 할 수 없기에, 만약 내가 듣고 싶은 세미나 수업이 있는데 수강 신청 기간이 촉박하다면 미리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 양해를 구하면 된다.

한국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독일은 수강 신청 및 정정이 자유로운 대신 시험 등록 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수강 신청을 했더라도 시험에 등록한 수업만 시험을 보거나 기말 과제를 제출하여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시험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수업은 드랍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니 전부 수강신청 해 놓고 그때 가서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학과 오티에서 설명해 줄 텐데, TUM online 에서 아무 수업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curriculum 란에 가면 module 단위로 여러 개의 수업이 묶여 있다. 보통 초록 원 수업 1~2 개, 빨간 세모 수업 1 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초록 원은 강의(수강 신청해야 하는), 빨간 세모는 시험(시험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함)이다. 수업을 듣고 싶은 모듈에 초록 원 수업이 한 개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여러 개라면 꼭 모두 등록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수업 별로 선행 수업 수강이나 Master 등 제한 조건이 있는 수업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석사 수업은 영어 수업이 별로 없고 거의 Master 수업 뿐이기 때문에 Master 제한이 걸려 있을 경우 교수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메일을 드리면 대부분은 오케이 해 주신다.

3. 학습 방법

TUM moodle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으며, snu etl에 해당된다. 과목별 수업 자료 및 공지사항은 TUM online 이 아닌 이쪽에 올라온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이다. 웬만큼 규모가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롯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간단한 영어는 다들 할 줄 안다. 필자의 경우 독일어를 한 마디도 못 하지만 문제없이 살다 왔다. 만약 독일어 수업을 듣고 싶다면 TUM 에서 독일어 강의를 수강 신청할 수도 있으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랜덤 배정된다. 수강 신청 기간이 일찍 끝나는 편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필자는 유튜브에 독일 교환학생 준비물이라고 쳐서 나오는 그대로 가져갔다. 단, 롱패딩이 없다고 뜨는데, 그새 생겼으니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롱패딩을 평소에 잘 입지 않는다면 가져오지 않고 추우면 사서 입어도 된다. Woolworth에서 20유로 이하로 싸게 구매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화장솜도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 굳이 많이 챙겨올 필요 없다. 겨울에는 장갑과 목도리가 필수이니 가져올 것.

신발은 모든 교환학생 후기가 알려주듯 운동화만 가져와도 된다. 그래도 오케스트라 등 공연을 좋아한다면 무난하게 신을 편한 구두 한 개 정도 가져와도 좋을 것 같다.

꼭 가져와야 되는 물건은 충전 잭, 보조배터리 등 전기 관련 제품. 필자는 뮌헨에서 랜선을 샀는데 10유로 정도 했다. 고장을 대비해 여유분까지 챙겨오는 걸 추천한다.

2. 현지 물가 수준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들 하는데, 식당의 경우 확실히 비싸다. 고급 음식이 아니더라도 한 끼에 15유로~20유로 선이면 괜찮은 편이며, 마트 물가는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요리를 많이 하게 된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보험-TUM은 TK공보험이 필수이고, 이 공보험은 보험비가 한 달에 120유로 정도로 비싼 대신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등 대부분 지원을 받는다. 단 보험 카드가 꽤 늦게 나오므로 그 전까지 진료는 가능해도 환급금은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

통신-보통 Aldi, Lidl 등 슈퍼마켓에서 유심을 사서 개통하며, 그게 가장 저렴하다. 필자는 그냥 보이는 통신사에 들어가서 개통하느라 보따폰을 썼다. Aldi, Lidl에 비해 실물 매장이 있어 문제 생겼을 때 보장받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통신비는 달에 20유로로 데이터 20기가를 이용할 수 있다. 필자는 핸드폰이 듀얼심을 지원하는 것을 몰라 실물 유심을 Esim으로 바꾸고 싶어 이것저것 발품을 팔았는데, 마리엔플라츠에 있는 보따폰 매장에서만 가능하고 오후 1시경에 가야 재고가 남아 있으니 괜히 헛걸음하지 말고 해당 매장에 가서 물어보는 걸 추천한다.

교통-뮌헨에서 MVG에서 학생을 위한 할인된 가격의 29유로 티켓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해서 메일이 오는데, 이게 있으면 한 달 간 29유로만 내고 독일 내 ICE 열차를 제외한 모든 기차(RE 포함), 버스, 지하철(U반, S반 모두 해당)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학 허가서와 독일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독일에 도착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친구의 계좌번호를 미리 입력해 두고 나중에 계좌번호를 바꿔도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보통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인터넷 계좌인 vivid와 revolut를 많이 이용한다. 이 중 revolut는 신청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vivid는 독일 계좌이다. 대부분의 atm에서 두 은행사 모두 수수료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필자는 둘 다 계좌를 만들었지만 revolut만으로 충분하다. 단 은행 매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물 은행 매장이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 하면 슈파카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atm을 찾지 못했다면 혹은 한국 카드만 있다면 마트에서도 수수료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으나, 애플페이 등의 가상 카드 대신 실물 카드가 꼭 필요하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TUMi ESN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학기 내내 꾸준히 프로그램 신청이 올라오니 많이 참여하면 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위의 내용으로 본부 해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4 년 2 월 14 일
지원자* 서명 필수	조 다 은(인)

*위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파란색 상세 목차는 예시로, 작성자에 따라 변경 가능)